

- 1. 종교다원주의 배격
- 1. 동성애 반대
- 1. 차별금지법 반대
-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58호  
10월 5일  
2024년  
토요일

#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세계하나님의성회 아시아 태평양신학협의회)

## WAG APTA 이사회 및 심포지엄 개최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학교육 상황점검 오순절신학 정립



심용재 목사  
교단 국제총회장

세계하나님의성회 APTA(아시아 태평양신학협의회) 이사회와 '아시아에서의 오순절 정체성'이란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지난 9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3박 4일간 태국 방콕 태국 오순절신대학원에서 개최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학교육 상황과 복음주의적인 오순절신학의 정립과 미래 교육인재의 양성을 위해 기도하고 교육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APTA 미팅에는 본 교단 국제총회장인 심용재 목사가 한국교회 신학교육 상황을 소개하는 등 한국교회와 예하성 교단의 교육상황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사회에서는 미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학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 국가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다.

10개국 40여 명의 각 국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교육의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려 '아시아에서의 오순절 정체성'에 대하여 패널들의 발표와 응



답 그리고 질문과 답변으로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다.

심포지엄 발제로는 1. 오순절주의 2. 필리핀 중동해의 근로자들의 오순절 실천과 선교의 중요성 3.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오순절신학 교육의 모델 4. 실용주의와 호주 오순절주의 5. 한 세기 말레이시아 하나님의성회 오순절주의 상황 6. 중국 오순절주의 등을 주제로 열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육활성화와 지

역별 인재양성을 위해 보다 면밀하게 각 지역별 필요를 살펴 신학교육을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아울러 내년 심포지엄에서는 점점 심각해지는 LGBT(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 성소수자)에 관하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논의 및 발표를 듣기로 했다.



### 교단 제73차 총회 제5회 임원회

## ‘제2회 한국교회기도의날’ 온라인 기도회 적극 참여

‘요동하는 국내외 정세 극심한 자연재해’ 어디서든 깨어 기도해야



김영준 목사  
예하성 총회장  
갈릴리온사망교회

교단 총회(총회장 김영준 목사) 제73차 총회 제5회 임원회가 지난 9월 24일(화) 오후 1시 순복음거제중앙교회(담임 장동근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백영자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출 17:10-16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로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신다. 직접 하나님께서 싸우셨다고도 과언이 아니다.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지 않았다. 전쟁의 승패는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파곤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전세가 역전되어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 되었다. 함께 산위로 올라간 아론과 훌이, 전쟁이 끝날 때가



지 모세의 팔을 붙잡고 높이 올렸다. 전쟁의 승패는 산 아래에 있지 않았다. 전쟁의 승패는 기도하는 모세에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전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장동근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오세준 목사의 총무보고로 아세아 태평양지역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회의(APAGF)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려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가 참석하여 교단의 비전을 설명하고 청소년들의 미래비전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음을 보고했다.

또한 교단 교육국 주관 2024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청소년연합수련회가 대림번영교회 평창수양관에서 2백여 명의 내일의 주역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비전을 이루어 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최정식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회계보고사항으로 이어졌다. 결의 및 안건토의사항으로는 각종 보고와 사고지방법 임원 임명 등을 처리했다.

이어 2025년도 목사고시대상자 오리엔테이션, 타

교단 교역자 본 교단 가입자 연수교육, 제12차 전국 사모회 탄환대회가 10월 21일(월)-23일(수) 전원성전에서 개최되는 내용 등이 보고되었으며 10월 3일(목) 한국교회기도의 날에 각 교회별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알렸다.

임원들은 "한국교회기도의날 기획집행위원회가 10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제2회 한국교회기도의날'로 하여 각 교회와 신자들이 기도하는 날로 정한 이날은 5년 전 '제1회 한국교회기도의날'에 전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광화문 네거리에서부터 남대문까지 광장과 도로에 입주의 여지없이 모여 기도했다. 나라와 교회가 직면한 위기로 인하여 모두 일심으로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공화히 여기시고 응답의 징조를 보여주셨고 또한 입박한 위기를 면하게 하여 주셨다. 하지만 지금은 제1회 한국교회기도의날 당시보다 더한 위기상황이며 급변하고 요동하는 국내외의 정세와 극심한 자연재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전국 각 교회와 각 처소에서 전 세계 어디서든 현재 거하고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시간으로 기도문을 올린다든지 의견을 전하여 기도의 확산을 위해 진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공화히 여기는 사람’



조용목 목사

“공화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화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본문의 “공화히 여기다”라는 말은 ‘그 사람 편에서 같은 심정으로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이해하고 동정하며 나아가서 그 사람이 당면한 곤란을 타개하도록 돕게 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계산하여 이해득실을 따지는 타산적 인간관계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화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공화히 여기는 마음은 인간관계를 훈훈하게 하며 사회를 밝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항상 공화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 받을 만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며 비난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신도 유사한 잘못을 저질러 비난을 받는 사례를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을 수 없고 또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로 한 행위와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행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공화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려면 “사람은 불완전하고 누구든 유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율법의 척도로만 상대를 판단하면 정죄할 것밖에 없는 반면에 공화히 여기는 마음으로 판단하면 동정과 이해도 하게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용서하고 위로하며 치료하셨습니다. 죄와 슬픔과 고통에 얽매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므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며 기적을 베풀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공화함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최대한 공화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정녕 공화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영혼이 헛벗고 굶주

린 상태에 있는 사람, 죄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여 연민의 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공화히 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성도는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에 앉은 위치에 있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공화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넷째, 자신이 하나님의 공화함을 입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공화함의 성격은 세 가지입니다. 천성적인 것이 있고, 교육과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되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의 공화함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나 공화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한량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화함을 과거에도 입었고 지금도 입고 있으며 앞으로 입어야 합니다. 이따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화함을 입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항상 이를 상기함으로 공화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공화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공화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음이 강박하고 매마른 사람, 율법의 척도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하는 사람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삭막하게 합니다. 반면에 공화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활기차게 하고 온화하게 합니다. 공화히 여김을 받기보다 공화히 여기는 사람이 더욱 복이 있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

## 2025년도 목사고시대상자 오리엔테이션

### 고시위원회-목사고시 일정과 성경고시 등 안내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이석호 목사)는 지난 9월 30일(월) 오전 10시 총회본부에서 2025년도 목사고시대상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목사고시 일정 등 목사고시를 위한 제반 준비 사항을 안내했다.

오리엔테이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고시위원회 서기 이경진 목사의 사회, 고시위원 이문근 목사의 기도, 고시위원장 이석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담전 1:12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부르심’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서는 잘 훈련된 자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의 의지하고 나가는 자를 세우신다. 주님이 맡겨주신 나의 직분을 깨닫고, 은사를 발견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워 나가는데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사

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목사고시 응시자들을 축복했다.

이석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목사고시 일정과 성경고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임원을 선출하고 연락망을 구축했으며 목사고시 문제집 발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목사고시는 2025년 2월 3일(월) 오전 10시부터 치러지며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교회행정학, 목회윤리학, 헌법, 기독교교육, 교회성장학 등의 과목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성경고시는 모세오경, 역사서(구약),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등의 과목에 대해 주관식과 객관식 문제들이 출제되어 평가를 하게 되며 설교 및 면접은 성경고시 이후 곧바로 실시된다.





# “기독교 모욕한 김성회는 사퇴하라”

한기총, 국회 앞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9월 12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막말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회견은 지난 9월 국회정문회에서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였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한 것을 규탄한 것이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국회의원은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는 모욕적 언사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 자리에서 함부로 내뱉었다”며 “이는 기독교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를 조롱하는 막말이요 극악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망령된 자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것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라며, “이제 한국 기독교가 분연히 일어나 참담한 상황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성회 의원은 본인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하라”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모든 국회의원은 기독교를 모욕하고 혐오하는 발언과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는 국회의원 ‘막말’ 특권을 즉각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회장은 “한기총과 한국교회 1,200만 성도는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라며, “함께 일어나 회화를 짓밟고 모독하는 자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정신을 바

짝 차리고 지켜봐야 한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한기총은 기자회견 후 김 의원에게 전달할 항의서한을 국회에 제출했다. 항의서한에서 “보수 기독교와 탈레반주의자라는 말을 연결시켜 1,200만 성도와 한국교회 및 보수 기독교를 모욕하며 조롱한 극악한 언사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함부로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으로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 튀르키예에 현지어 성경 10,800부 보내

성서공회, 하나님의 복음으로 튀르키예 국민들의 마음 열리길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영원 목사) 반포 센터에서는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3차 발송분 <튀르키예어 신약> 10,800부를 튀르키예에 보냈다. 튀르키예에 발생한 지진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튀르키예 교회와 터키

성서공회는 성경 지원을 요청해왔다. 대한성서공회는 한국교회의 후원을 받아 튀르키예에 보급할 성경을 제작하였고, 지금까지 튀르키예에 3차례에 걸쳐 성경을 발송하게 되었다.

1차로 <튀르키예어 신약> 15,873부가

2023년 5월 18일 발송되었고, 2차로 <튀르키예어 신약> 2,985부와 <튀르키예어 성경> 5,000부가 2023년 8월 17일 추가로 발송되었다. 이번 3차 발송까지 합하여 현재까지 튀르키예에 성서 총 34,658부가 튀르키예 사람들을 위해 보내졌다.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튀르키예에 성경 보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튀르키예는 지진 이후 성경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앞서 발송된 성경은 지역 교회를 통해 보급되고 있으며,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터키성서공회 총무는 “튀르키예 사람들은 다른 어린이들이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자신의 자녀를 데려온다. 이를 통해 보는 것은 튀르키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크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점”이라며 성경이 튀르키예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있음을 알렸다.

## 예장 백석총회, 제47회 정기총회 성료

저출산대책위 신설, 이단 탈퇴자 가입 규정도 마련키로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총회는 지난 9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천안 백석대학교교회에서 ‘백석의 생명, 오직 예수’를 주제로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7회 정기총회는 1만 교회로 부흥 성장한 백석총회가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

특별히 금권선거 만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해 깨끗한 임원선거를 치러낸 백석 정기총회는 전국에서 참석한 1,008명 총대들로부터 만장일치 기립박수를 받았다.

백석총회는 금권선거 차단을 위해 작년 정기총회에서 제비뽑기를 통한 선거인단 제도



를 도입했으며, 지난달 8월 19일 선거인 투표율 마진 결과를 이번 총회에서 보고하고 추진 받았다.

신임 총회장은 부천 목양교회 이규환 목

사, 목사부총회장은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 제1 목사부총회장은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 장로부총회장 큰사랑교회 오우종 목사가 추대됐다.

## 예성-굿네이버스, 업무협약 체결

아동들의 권리 증진과 나눔문화 실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총회장 김만수 목사)와 (사)굿네이버스(Good Neighbors)가 위기가정 아동들의 권리증진과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지난 9월 5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소재 교천교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교단에서는 김만수 총회장과 권순달 총무, 이운영 사회복지국장이 참석했으며, 굿네이버스에서는 장성계 서울인천권역본부장, 김정미 경기강원권역본부장, 서은경 서울북부사업본부장, 강효진 서울북부사업본부과장, 김우섭 경기강원권역본부 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협약식은 서은경 본부장의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권순달 총무의 기도와 김만수 총회장, 장성계 본부장, 김정미 본부장의 인사말, 협약 소개 및 협약서 서명, 기념사진 촬영 순

으로 진행됐고, 김만수 총회장이 축도를 함으로 순서를 마무리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또한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로 현재 전 세계 4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예성은 총회와 지방회 및 교회들이 공동으로 앞으로 굿네이버스와 함께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자원봉사 활동, 복지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 아동지원 협력 및 이웃사랑 실천 협력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굿네이버스 서울인천권역본부 업무협약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심하보 목사, 이하 서기총)는 굿네이버스 서울인천 권역본부(장성계 본부장)는 아동권리증진 및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은평제일교회에서 진행됐으며, 심하보 서기총 대표회장, 노근재 서기총 사무총장, 장성계 굿네이버스 서울인천권역본부장, 전정환 굿네이버스 서울인천권역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장학금 및 경제적 지원 연



계체계 확립과 이웃사랑 실천 캠페인을 상호간 협력하여 진행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굿네이버스 서울인천권역본부는 서기총과 함께 지역 내 위기가정 사례연계를 통해 재가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심하보 서기총 대표회장은 “다음세대를 위한 아동권리 증진 및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지역사회 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계 굿네이버스 서울인천권역본부장은 “지역내 선한 영향력을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전주 예수병원, ‘환자 안전의 날’ 기념행사

2024년 세계 환자 안전의 날을 맞아 환자 안전 캠페인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종식)은 2024년 세계 환자 안전의 날을 맞아,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본원 로비에서 ‘환자 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운영 중인 중앙

환자안전센터는 2024년 ‘다 같이 해서 더 가치 있는’ 환자 안전 캠페인을 주제로 진단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예수병원에서는 전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환자 및 보호자와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각각 나

눠 진행됐다. 의료진이 참여한 ‘진단 향상’을 위한 우리의 다짐’ 프로그램을 통해 직종별로 자신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다짐을 적었다. 이는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예수병원 의료진의 진솔한 마음이 전달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 세계 환자 안전의 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진단 향상과 정확하고 적절한 시기의 진단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연계 활용 예정이다. 또 ‘안전한 진료 함께하기 설명서’ 제작을 통해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이 외래 진료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설명서는 후대가 간편해 타 의료기관의 방문 시에도 효과적으로 의료진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환자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진료에 기여 할 수 있게 됐다.



## 예장합동보수, 제109회 사무총회

교역자세미나 개최 등 사업계획 수립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는 지난 9월 9일(월) 오전 11시 부천시 역곡로 소재 옥토교회에서 제109회 사무총회를 개최하고 교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회 1부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문인주 목사 사회로 서울노회장 장창대 목사의 기도, 찬양노회 서기 전남수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총회장 심의경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심 목사는 요 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증거 해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증거 하는 목회자의 자세도 중요하다. 특히 겸손히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거만하게 말씀을 평가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세가 아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예배는 감사 임종철 목사의 헌금기도와

총회장 방정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성찬식은 총무 전해숙 목사의 집례로 찬양노회 최병화 목사의 기도, 전해숙 목사의 고전 11:23-2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성만찬’이라는 제목의 설교 후 분병과 분잔 순으로 진행됐다. 제3부 회무처리는 의장 방정웅 목사의 사회로 서기 최영희 목사의 회원점명 후 성원이 됨으로 의장 방정웅 목사가 개회선언을 했다.

회무처리는 계속해 회순채택과 함께 서

기, 회계, 감사, 선교위원회 등 모든 보고사항을 유인물로 받기로 하고 안전회의 시간으로 들어가 교역자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합동수련회 실시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회의록서기의 회의록 낭독, 의장 폐회선언으로 총회를 마쳤다.

△총회장 방정웅 목사 △부총회장 문인주 목사 △총무 전해숙 목사 △서기 최영희 목사 △회계 박영희 목사 △회의록서기 권선일 목사 △감사 임종철·최병화 목사



## 월드비전부흥협, 발족 및 연수회

대표회장에 허은혜 목사 등 임원 선출

월드비전부흥협회가 지난 9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소재 강남식기도원에서 발족예배를 드리고 대표회장에 허은혜 목사를 선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대표회장 허은혜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김동현 목사의 대표기도, 교육회장 김미경 목사의 성경봉독, 교육회장 이명진 목사의 몸탄양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는 창 13:14-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황금어장이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받은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총무 조수연 목사의 헌금독송, 부총재 양윤숙 목사

의 헌금기도에 이어 2부 대표회장 취임식 및 임원 임명식 시간은 상임회장 김숙임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에 대한 약력소개, 취임패 전달,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허은혜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온전할 희생으로 이루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과 헌신으로 단체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회장 허은혜 목사가 고문 조요셉 목사를 비롯한 총재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총본부장 민병호 목사를 비롯한 회장단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3부 격려사·축사·특별기도 시간에는 상임회장 김숙임 목사의 사회로 대표고문 조요셉 목사·상임총재 노영근 목사의 격려사, 실무총재 한신 목사·소망교회 고종욱 장로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생명의 말씀



최형택 목사

- 교단 전임 총무
- 전라지방회 전임 지방회장
- 광양은혜와진리교회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머물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결국에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며 바알보름에 가담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 명하셨고, 이에 모세는 바알보름에 가담한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였던 시므리와 미디안 족속의 수령인 수르의 딸 고스비가 간음하는 장막으로 들어가 창을 들고 찔러 죽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은 시므리(나의 노래)와 코스비(숙이다)로, 이 둘의 이름을 합치면 “나의 숙이는 노래”가 됩니다. 즉, 거저된 음녀, 미혹된 거저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창으로 살

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언약과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시며 이는 그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을 속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열병으로 이만 사천 명이 죽어가는데서 그쳤 습니다(민 25:9).

하나님을 감동케 한 비느하스의 질투심은 과연 어디에서 났을까요? 살인죄를 지였는데도 형벌은커녕 평화의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세우셨을 까요? 우리는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1.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라.

민 25:11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질투심은 바로 십계명 안에 있습니다.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백성들의 멸망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면 출 20:1-3 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 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2.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평화와 함께 주십니다.

민 25:12-13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첫 마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이 마음에 들었으면 두 가지 언약을 세우셔서 영원히 유효함을 선포하셨을까요? 왕정시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이 내리므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근 시나에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들을 모두 한 번에 다 없애버렸을까요?

바로 비느하스처럼 다른 신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 모습들에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가득차서 분노가 일어나 그냥 지나 갈 수가 없었던 것 아닐까요? 엘리야 속에 비느하스의 영성이 함께 한 것입니다. 장차 마지막 종말에는 철장을 주셔서 세상

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계 2:26-27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 그를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에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하셨습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로부터 끝까지 미혹되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의 창을 들어야 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살롬은 영원한 제사장 언약이므로 이 시대 불법이 성행하고 우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심판을 앞에 두고서 니느웨로 돌아간 니케뮈르 외쳐대야 할 것입니다.

3. 이 시대 분노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 비느하스! 주 위해 싸워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주 말씀 선포하라!

바로 눈앞이 가시안,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어찌 거기서 배도의 길을 가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 25:2-3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족장시대의 우상과 함께 음란한 모습이 이 시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계시록에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계 18:2 “함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곳이 되었도다” 진정으로 심판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다면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의 분노로 솟아오르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계 17:1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은 예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저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교회들이 심판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알고 외쳐대야 합니다.

계 18: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엘리아와 여러 많은 선지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모두 하나같이 비느하스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지겨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이 있다면 “네 마음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구나” “네 마음 속에 내가 있단다”

나의 남은 제사장 직분을 다 마칠 때까지 평화를 지겨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질투심, 곧 사랑의 열정을 외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비느하스! 주 위해 외쳐라! 주님 오실 날 가깝고 어찌 이 때에 배도의 길을 가나 어찌 이 때에 음행에 빠지는가 일어나라 비느하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말씀을 선포하라! 어찌 이 때에 우상에 절하는가?

한 모습이 아닌가. 40여 년을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는 386세대의 잠꼬대 같은 소리를 정말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의 미래와 바른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에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키니 말이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면 북한 주민의 생존과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또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주권을 버리는 것이 된다. 그래도 되는가? 그러려면 왜 통일운동을 해 왔는가?

통일은 현실을 외면한 환상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할 사안도 아니다. 북한의 2,000만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행이 이제는 멈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 통일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황당하게도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의 말에 휘둘리는 정치인의 주장은 공허하게 들리고,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동정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서울대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지난 9월 24일(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김성희·천하람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트루스포럼은 이 성명에서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주목하고 마르크스적 래디컬 페미니즘과 젠더이데올로기를 인권 논의에서 견여낼 것을 요청했다.

감리교 감독회장에 김정석 목사



김정석 목사(광림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대 감독회장에 당선됐다. 지난 9월 26일(목) 진행된 감독회장 선거에서 기호 3번 김정석 목사는 총 8,354표(57.38%)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부족한 저를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감독회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혁 목사, 합동총회장 이·취임



예장 합동이 지난 9월 25일(수) 저녁 총회장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제109회기 총회장에 취임한 김종혁 목사는 “직전총회장님의 지도를 따라 잘 하겠습니다”고 짧게 인사했다. 이 예배에서 이임사를 전한 제108회기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우리 김종혁 목사님이 총회장 벼탄을 이어받게 돼 감사하고 기쁘다”고 전했다.

감리회 동성에 대책 통합위 출범



성경적 감리교회 수호를 위한 ‘감리회 동성에대책 통합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 이하 통합위)’가 공식 출범했다. 통합위는 9월 25일(수) 인천 만수동에 위치한 중부연회 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더 이상 일부 목회자들의 일탈이 감리교 전체의 정체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군선교위원회, 단양대대 장병 위문

단양지구 전투 전사자 유해발굴단 찾아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 국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9월 6일(금)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운데 6.25 전쟁 때 대한민국 국의 운명을 바꾼 단양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장병들 중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한 구의 시신이라도 발굴하기 위해 수고하는 단양대대 부대원들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단양대대 부대장은 우중에도 장병들을 위해 먼 길 마다 않고 찾아주고 위문하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도 보답하는 길은 사고 없이 전사자들의 유해 한 조각이라도 반드시 찾아내어 좋은 결실을 가득할 품



에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장병들과 함께 발굴현장에서 드린 예배에서 정석현 목사는 디후 2:4 말씀을 본문을로 “명령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의 설교

를 통해 “명령에 충성하기 위해 이곳에서 땀 흘리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들의 노고와 애국충정에 감사하고 끝까지 찾아내어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스러져 간 선진들의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했다.

박순용 목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고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갈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다.

이날 장병들에게는 영일 열린교회(담임 유홍일 목사)의 후원으로 빵과 음료수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홈페이지 : [www.ucts.org](http://www.ucts.org)

**2025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장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 ‘제주평화인권헌장안’ 반대성명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왜곡된 인권, 거짓된 평등의 가치로 역차별 하는 무늬만 다른 차별금지법

## 제주지방회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정자들은 제주 평화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안을 제정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도민공청회를 열기로 공고하였다.

이에 9일 오후 2시 제주현대뉴스에서 대회의실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하

는 제주시민 200여 명이 모여 공청회에 참석했다. 제주시는 제주평화인권헌장 공청회에서 절차를 무시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파행으로 이끌었다.

새로운 법이나 조례나 헌장을 제정할 때는 개인의 삶과 가정의 행복,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제주에서는 헌법에 이미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라는 무늬만 다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제주사회를 무질서와 혼란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이에 제주와 나라를 사랑하며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반대 제주도 민연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반대한다.

하나,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차별금지와 인권, 평등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혼란을 야기하게 될 또 다른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필요치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11조는 차별을 금지하며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지금도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오히려 소수자의 인권과 삶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인권이 역차별 받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되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들이 살게 될 제주도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질서 있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갈망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질서를 흐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반대한다.

하나,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 반대한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포함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역차별이 예상된다.

동성애나 성소수자, 성전환 등에 대해 어떤 표현도 할 수 없어 오히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게 되어있다. 종교와 이단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남자 머느리, 여자 신장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 생각을 표현할 수 없다. 오히려 오염된 사상, 잘못된

인권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저항 없이 교육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며, 차별 받지 않고 존중 받을 권리인가?

하나,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편향된 4·3 해석을 고착화하고 반문을 제한함으로 4·3의 역사적 사실을 묻으려 하고 있다. 화해와 상생을 주장하면서 독선과 독주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헌장이 될 것임으로 우리는 반대한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말이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잊으면 미래는 없다. 43은 우리 제주의 슬픈 역사이다. 이념에 의해 많은 삶이 희생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가야할 때이다.

그렇다고 역사적 교훈까지 왜곡하고 거짓으로 꾸며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는 바로 연구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말해야 하고, 치유를 위해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43에 대해 너무 왜곡하고 있어 마음 아프다.

그리고 분명한 증거들을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조항들은 앞으로의 역사가 심히



격정된다. 굳이 이렇게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정말 조용한 혁명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나,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그동안 사회적인 반대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던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지극히 편파적인 안이다. 평화와 인권을 외면하고 만든 헌장이 평화와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편파적인 사람들이 은밀히 모여 만든 악법이다.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전혀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헌장을 만들어 사회와 질서와 가정과 국가를 흔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손들이 살아야할 바른 제주를 지키고자 무늬만 다른 차별금지법,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반대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장치들은 지금도 충분히 사회와 국가질서를 지키고 있으며, 충분히 인권을 누리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다. 국가는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대접받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 가운데 제주도는 가보고 싶은 꿈의 섬, 보배의 섬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정서에 반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으로 질서가 깨지고 황폐한 섬이 될 것을 우려하며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4년 9월 10일

거룩한방파제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한국청소년바보세움제주연맹 나라사랑 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사랑의재능기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해피어스성품연구소 제주생명을사랑하는모임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제주4.3사건강탈유가족회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제주성시화운동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노회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제주시기독교연합회 서귀포시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북기독교교회협의회제주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남기독교교회협의회

## 미니 포괄적차별금지법 역차별 시도

제주도평화인권헌장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총력저지

##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에서는 제주도청이 제정, 선포하려는 제주도평화

인권헌장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역차별을 시도하는 미니 포괄적차별금지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회 전임회장인 김건수 목사는 여러 시민단체와 제주도기독교

교단협의회(부회장 겸 특별위원장 김진수 목사)가 함께 모여 9월 9일(월) 제주시와, 9월 10일(화) 서귀포시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편향된 인사들로만 구성된 제정위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제정과 발표를 위해 요식절차로 진행되는 공청회자체가 원천무효임을 선포하고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청회 무산을 위해 격렬하게 항의하여 공청회가 파행되고 말았다.

추후 기독교교단협의회는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여 독소조항에 대해 적극 항의하고 제정 절차가 법적으로 원천무효임으로 파기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예정이다.

## 바른 복음전파 위해 뜨겁게 기도

##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9월 9일(월) 오전 11시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22번길 16에 위치한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정영진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두 목사(순복음삼천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김주성 목사(순복음민들레교회)의 대표기도, 진영훈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롬 8:12-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성령으로 인도받기’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 후 주신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고, 윤정희 목사(순복음바교교회)의 헌금기도, 전임지방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각종 회무를 보고·처리한 후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사람과 환경보다 진리에 서있는 목회 다짐

##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윤철희 목사)는 지난 9월 24일(화) 동해안복음교회(담임 도사현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항구 목사(주산양교회)의 사회로 김재두 목사(성산은혜교회)의 대표기도, 전임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행 20:2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주의 종들이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또한 시대적인 어떠한 흐름 속에서도 진리에 바로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회 부회장 정민철



목사(상주반석교회)의 헌금기도, 전임지방회장 도사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지방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10월 3일 ‘한국교회 기도의 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지방회 목사들의 건강과 질병자유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이후 월례회를 갖고 안진들을 처

리하고 지방회 आयुर्वेद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월례회를 마치고 동해안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고 울진에 있는 풍력발전소로 이동해 웅장한 풍력발전기와 바다가 보이는 시원한 경치를 구경했다.

또, 찻집으로 이동해 차를 마시고 교제하며 담소를 나누고 각자의 사역지로 향했다.

## 목양시론

## 대통령 탄핵 주장은 속히 멈춰야 한다

지난 27일 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촛불합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대통령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다. 국회에서 행사를 하려면 현역 의원의 주선이 있어야 하는데,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구)이 그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 촛불행동은 이미 2022년 8월부터 윤 대통령 퇴진운동을 펼쳐왔고, 지금까지 108차례나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퇴진운동을 펼친다는 것은 국민들이 선택하여 뽑은 대통령과 국민들의 뜻을 짓밟는 오만한 행동이다.

이 단체의 상임대표는 ‘조국백서’를 썼고, 전 경희대 교수를 지낸 김민웅 씨이며,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의 친형이다. 형은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고, 동생은 느닷없는 ‘계엄령’이라는 가짜뉴스 수준의 황당한 발언을 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런 촛불행동과 뜻을 같이하는 단체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언론소비자주권

행동,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내란 선동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 운동, 김정은 환영 행사를 기획했던 단체이다.

이날 밤 행사에는 김민웅 전 교수, 광우병 발언을 했던 방송인 김미화 씨, 서울시 교육감을 지냈던 박노현 씨, 전대협 임종석 씨가 복권에 보냈던 전 국회의원 임수경 씨도 참석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28일에는 서울 송례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 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는 전국민중행동, 윤석열 정권퇴진운동본부 등이 있다. 전국민중행동에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평화통일연대는사람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민중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주도한 단체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거나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7일

밤 촛불행동을 국회로 불러들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윤석열 탄핵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 모임의 멤버’라고 하였고, 촛불행동과 함께 윤 정권을 탄핵시키는데 연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탄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다. 한번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3월 9일 국회에서 발의하여, 3월 12일 가결되었으나, 그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발의되어 12월 9일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정당성은 아직도 의문으로 회자(膾炙)된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선택한 민의(民意)는 커다란 상처를 입는 것이고, 국정에 차질이 불가피하여 국가적으로도 엄

청난 손해가 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이후에 장관, 검사, 방통통신위원장 등 여러 건에 대하여 탄핵을 시도했으나 9:0으로 패배한 바 있다. 그렇다면 현 대통령이 탄핵의 요건이나 이유가 되지 못함에도 굳이 무리하게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 이재명 대표의 여러 건에 걸친 사법적 사건에서, 사법 조치가 현실화될 것이 확실시되어, 그 리스크를 우려한 ‘빌드업’(Build-up, 축구 용어로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하고 공격을 전개하려는 패스 워크)이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어찌 범법 혐의의 대표 한 사람을 위하여 국회가 방탄 역할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호위무사가 되며, 불온한 시민 단체를 국회에까지 끌어들여, 국정을 어지럽게 하려는 것인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 제65조(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에 나타난 명백한 범죄가 아니라면, 합부

로 논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인가? 국민들을 위한 민생(民生)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탄핵 놀음’에 나라 망하는 줄을 모르는가? 이런 정치 지도자의 행태를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봐 겁이 난다. 정도(正道)를 가지 않는 정치자는 스

스로 무능이나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나라가 혼란하고 망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가를 정치 지도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탄핵을 너무 부르짖는 사람들이 정말 탄핵값은 아닌가?

###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 장래의 꿈을!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군 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실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적 격조를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세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책과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들여드리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들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웅 목사 (010-9720-1603)



# 2024년도 73차 여교역자국 추계수련회 열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라”(살전 1:3)

순복음주찬미교회, 순복음갈릴리교회, 순복음세움교회에서

개회예배설교



김영준 목사  
갈릴리소망교회 담임



국장 조영란 목사  
탄현멜로교회담임

전국여교역자국(국장 조영란 목사) 2024년도 추계수련회가 지난 9월 26일(목)~28일(토) 2박 3일간 순복음주찬미교회와 순복음갈릴리교회, 순복음세움교회 및 부산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수련회에서 전국여교역자국 회원들은 이단 사이비의 교회 침투를 막고, 종교다원주의와 차별금지법으로 포장한 동성애 등으로 한국교회에 깊숙이 잠식해오는 사탄의 세력을 분쇄하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한 사명감당을 다짐하는 한편 국가의 안보를 위해, 사랑과 인내, 열정과 희생으로 땅 끝까지 성경대로의 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수련회에 참석한 여교역자들은 여러 순서를 통해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지금 우리나라와 교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바른 상황 인식과 함께 시대적 사명감으로 충만하여져서 교회지도자답게 처신하며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것을 다짐했다.

추계수련회는 첫날인 26일(목) 오후 3시 순복음주찬미교회(담임 윤혜영 목사)에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개회예배는 교단 여교역자국 예배부장 조병희 목사의 사회로 시작, 교단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

의 성경봉독, 교단 총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소망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영준 목사는 첫날 개회예배에서 고후 5:6 말씀을 본문으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인정받느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전하고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교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전국에서 참여한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전임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의 권면, 탁정신 목사의 축사, 최정희 목사의 헌금기도, 김은숙 목사의 헌금송, 여교역자국장 조영란 목사의 전임 여교역자국장 탁정신 목사, 한순남 목사, 직전 여교역자국장 백영자 목사에게 감사패 증정, 김찬애 목사의 광고,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저녁식사 후 열린 워크숍에서는 친교부장 조은혜 목사의 인도로 조별로 구성된 조



말씀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고문 정부용 목사(대림멜로교회 당회장)

원들이 백지에 서로의 마음을 모아 자신의 신앙과 비전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율동으로 표현하며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촛불기도로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기도 했다.

이어 여교역자국장 조영란 목사는 ‘여목회자의 리더십과 사역의 고충’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여목회자로서 주변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순복음갈릴리교회에서

회원들은 둘째날 저녁에는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정영진 목사)에서 정부용 목사(고문, 대림멜로교회 당회장)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가졌으며 셋째날 오전에는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직전국장 백영자 목사를 강사로 폐회예배를 드렸다. 여교역자들은 성령충만을 사모하며 뜨겁게 찬양한 후 말씀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둘째날 오전과 오후 송정바다



기차역에서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를 타고 멋진 바다뷰를 즐기며 애기꽃을 피웠으며 오후에는 동양 최고의 바다풍경을 뽐내는 부산의 맛과 낭만의 대명사 광안리 해변을 누비는 럭셔리 요트여행을 즐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후 회원들은 여교역자로서 목회현장

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역의 모습들을 간증을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었다. 여교역자국 회원들은 시간마다 설교말씀을 통해 사명을 일깨웠으며 성령의 역사로 큰 은혜를 받아 목양지에서도 더욱 힘을 얻어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전임 여교역자국장 탁정신 목사에게 감사패



전임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에게 감사패



직전 여교역자국장 백영자 목사에게 감사패



광안리바다에서 요트를...



해운대 해변열차



송정바다 기차역에서



워크숍을 통해 신앙과 비전을 점검



순복음주찬미교회에서



순복음세움교회에서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제12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주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모들이여, 일어서라!”(단 10:11)

강사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김영준 목사  
갈릴리큰소망교회

모시는 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폭염으로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사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존경하는 사모님들!

심신의 휴식과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제12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에 사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모들이여, 일어서라!”(단 10:11)라는

주제로 준비한 은혜의 자리에,

전국의 예하성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주의 사랑으로

친교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얻고, 합심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님들의 기도 후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사모회 회장 이윤순 -

|일자| 2024년 10월 21일(월) ~ 23일(수)

\*개회예배는 첫날인 10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1층 아가페성전에서 드립니다. 예배 후 교회버스를 이용하여 전원성전으로 이동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10월 21일 월요일 낮2시에서 오후1시 10분 사이에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맞은편의 “양촌리”에서 ‘예하성사모회’ 이름으로 식사하세요(마지막 주문은 12시 50분 마감).

2. 식사 후 1시 20분까지 안양성전 1층 ‘아가페성전’으로 오시면 됩니다(예배 후 교회버스를 이용하여 함께 전원성전으로 이동합니다. 자차이동도 가능).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 (왕림2길 76)

|대상| 교단 산하 전국 교회 목회자 사모

|후원계좌| 농협 352-2197-4294-03 (최윤정)

|문의| 총무 김세희 사모(010-2610-3816)

고문



최해선 사모  
기흥순복음교회

고문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회장



이윤순 사모  
갈릴리큰소망교회

### 2024 전국사모회 전임회장단

전임회장



김양란 사모  
포항안디옥교회

전임회장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전임회장



신동신 사모

전임회장



차추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전임회장



윤금자 사모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전임회장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직전회장



김사 민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 2024 전국사모회 임원진

수석부회장



손선희 사모  
홍제은혜교회

제1부회장



손정희 사모  
확관교회

제2부회장



최인석 사모  
부산갈릴리교회

총무



김세희 사모  
과산순복음교회

부총무



박미용 사모  
순복음한마음교회

서기



김재희 사모  
색종이교회

부서기



김길순 사모  
순복음성산교회

회계



나명숙 사모  
상주반석교회

부회계



이순선 사모  
시온순복음교회

재무



최윤정 사모  
안양순복음교회

### 제12차 전국사모회단합대회 일정표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08:00~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10:00		신앙유산탐방 (제암교회 3·1운동순국기념관)	찬양 매회예배 (전직총회장 김인찬목사)
10:00~11:00		제주도 투어 (서해랑 케이블카)	
11:00~12:00			
12:00~13:10	점심식사(‘양촌리’ 안양성전 맞은편)	점심식사	
13:30~14:30	개회예배(안양성전) 정책위원장 조용목목사		
14:30~15:00	전원성전으로 이동	수목원 산책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	
15:00~16:00	등록,방배정		
16:00~17:00	O.T, 지방회소개, Ice Breaking (서울남서 조규성목사)	저녁식사	
17:00~18:00			
18:00~19:30	저녁식사 및 휴식	휴식	
19:30~21:00	기도회 (교단총회장 김영준목사)	조별 나눔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 왕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고쳐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을 때 하는 후회는 슬픈 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조어 중에 “있을 때 잡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16세기 영국왕 헨리 8세(Henry VIII) 밑에서 오랫동안 황제에 맞먹는 권위를 지니고 행세해 왔던 추기경 울지(wolsey)는 마침내 왕의 신임을 잃게 되고 대 역죄로 체포되었다. 그가 런던에 갇혀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감시하던 윌리엄 킹스턴 경 (Sir William Kingston)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 온다.

“내가 왕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백발이 된 나 를 버리지 않으셨을 것인데...” 참으로 바보같이 살았다는 말이다. 더구나 신앙 인으로서 매우 유감이다. 고쳐서 다시 살아볼 수도 없는 불행하고 슬픈 일이다.

탄식해도 소용없고 슬퍼해도 고칠 수 없는 일이다.

추기경 울지(Wolsey)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복된 이들은 울지처럼 어리 석은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께 충성하는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노년에 버림받을까 봐 염려할 필요도 없다. 다윗은 분명하게 자신의 경험을 진술한 적이 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며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 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 27:9-10)

주님을 섬기는 데 충성을 다할 이유가 분명하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다.

초기 교회는 신앙의 대가로 목숨을 요구받기도 했었다. 그때 참된 신앙인들 은 기계이 목숨을 내놓고 신앙의 길을 갔다. 어떤 순교자는 ‘오직 나의 왕은 하늘에 계시다’며 담대히 화형대에 오르기도 했다. 하늘의 왕 우리 주님께 충성 하는 이들은 하늘 왕궁으로 초대된 이들이다.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 목적인생... 땀방인생...

사노라면 어떤 사람이  
목적이 되어 만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잘 수 없을 만큼...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를 만큼...  
살아갈 힘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도... 사랑함으로 행복해지는데  
어찌 그 사랑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사노라면 어떤 시간을 때우기 위해  
만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땀방 인생입니다.  
목적이 되지 못한 인생...  
지나쳐 버리는 인생...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사람  
누군가의 목적인 줄 알았다 땀방인 것 알았을 때  
찾아오는 그 씁쓸함... 불쾌감...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늘 찾아오십니다.  
여러 상황을 만들고 여러 사람을 보내서...  
창조주 하나님이나를 만나려 오신다니...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여 찾아오신다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복음이 내게 들려졌다면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날 땀방인생의 순간임을  
알아채고 씁쓸함을 맛볼 때  
성령님은 이런 마음을 넣어 주시며  
날 위로해 주셨다.

## 사설

### 오월동주

오월동주(吳越同舟)라는 말이 있다. 서로 반목하면 서로 공동의 곤란이나 이해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사이를 말하는 것이다. 썩 좋은 말은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 수단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고도 했다.

두 사람이 7개월 만에 만나 지지자들 앞에서 손을 맞잡고 나서자 민주당은 곧바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를 만들었다.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이 좋은 관계였던 건 아니었다. 이재명 대표는 종신 때 친 문재인과 비 이재명 인사들을 공천에서 대거 배제했다. 그러자 친문 쪽이 크게 반발했다.

친 이재명 쪽은 ‘문 정부가 정권 창출에 실패한 것’이라며 전 정권 책임론을 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탈당 요구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임박하자 ‘우리는 명·문 明文 정당’, ‘정치보복에 함께 맞서자’ 라면서 손을 잡은 것이다.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전형적인 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전(전 달해와 이혼) 사위 특혜 채용 등 뇌물을 받고(2억 2300만원) 그에게 의원직 등 대가를 지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세상이 다 아는 바다. 뭐라고 변명을 하든지...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및 위증교사 사건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 비리 수사와 재판을 앞둔 두 사람이 정치 갈등을 뒤로 하고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려 의기투합한 것이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두 사람은 엉뚱하게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는다고 흑색무민하고 있다. 국민들이 속을까?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각종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아 온 이 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을 강행 처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 공포했는데 그것도 시간을 연장하면서 의결, 공포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뒤집어씌우듯 막말을 할까? 국민들은 잘못에 대해서 쉽게 잊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임을 모르는가? 상대가 나에게 잘 한 것은 쉽게 잊어도 나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땅 속에 묻히기까지는 쉽게 잊지 못하는 게 인간의 속성인 것을.

그래서 나온 말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인데 왜 국무회의 시간을 미뤄 가면서 의결, 공포했나?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위 특혜 채용 등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정치탄압이라고 한다.

문 정부는 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라는 명목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을 비롯해 200여 명을 구속시켰다. 그 때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 예우가 아닌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고 하면서 구속을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맨 처음 주장한 사람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그러면서 한 말은 ‘이런 정치 보복은 맨 날 해도 된다’ 고도 했는데.. 그레 놓고 막상 자신들이 수사를 받게 되자 ‘정치보복’ 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 전 정권 누구 한 사람을 구속시킨 적이 없다. 문재인 정권이 마구 잡მო 했던 적폐청산 물의를 윤석열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암타까울 정도로 주저하고 있는 것만 보이는데 ‘정치보복’ 이라고 한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전문학적 국가 부채와 지영업자, 소상공인 몰락, 부동산 대란, 가짜 비핵화 쇼, 원전 폐기 등 등..헤아릴 수 없는 내로남불로 점철되었을 뿐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 민주화 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됐는데도 국정을 잘못해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사람이 누구에게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고 하는지. 준비 부족은 다른 사람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 이면서 문 정부 인사 37명이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정치보복’ 이라고 외쳐대고 있다.

자기들은 가족에게 적용할 법을 가족이 아닌 사람 에게도 적용해놓고는 자신들은 가족이면서도 발뺌하기 까지 하고 있다. 국민을 뭇로 보고 윤 정부는 스스로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당하고도 침묵하는 지. 과거 정권의 행태와 비교해 보아도 너무나 순해 빠진 정부가 아닌가 싶다. 지지층이 빠져 나가고 있는데 떠나도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 지지층 이탈을 떠나 증거와 팩트가 산더미처럼 있다고들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눈치를 보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 7:15)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천년초의 효능**

1)폐불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압축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갈솔 : 홍화씨의 24배, 열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말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 목포시내산교회

제자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 제2회 한국교회 **기도**의 날

2024년 10월 3일 10시 30분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7:14)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시65:2)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18:19)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33:3)

제2회 한국교회**기도**의날 **기도회**에 모두 동참하여 현재 우리나라와 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문제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와 주심을 전심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과 권능의 손을  
내밀어 도와 주십니다. 그리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십니다.

동참방법 : 홈페이지 한국교회기도의날.kr

유튜브채널 youtube.com @한국교회기도의날

주관 : 한국교회기도의날 기획집행위원회 (문의 : 010-6584-8138)

참여 : 국내외의 모든 교회, 모든 신자, 누구든지

주최 및 협력 :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회원교단200여 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한림원.

대한기독교노인회, 한국보수시민단체및전국기독교총연합(320개 단체)



유튜브채널  
QR코드